

오순절 후 열세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3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8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김강석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통일 5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9 번 요한복음 15 장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John) 21:1-6, 15-17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모든 일에 때가 있으나”	찬양대
설 교 Sermon	“ <b>요한의 아들, 시몬야</b> (Simon, Son of John)	김성웅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4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웅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다는,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7:10, 약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5)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 (John 21:1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18 (주일)	8/19 (월)	8/20 (화)	8/21 (수)	8/22 (목)	8/23 (금)	8/24 (토)
	삼상11	삼상12	삼상13	삼상14	삼상15	삼상16	삼상17
본문	롬9	롬10	롬11	롬12	롬13	롬14	롬15
	렘48	렘49	렘50	렘51	렘52	애1	애2
	시25	시26,27	시28,29	시30	시31	시32	시3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21수 오후7:30)	“순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왕상18:41-46)
토요 새벽기도회 (8/24토 오전6:30)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시149:1-9)

지난 주일 (8/11, 창립 46주년 기념주일) 말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행 11:20-26)

“사도행전”을 가리켜, (혹자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또한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행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는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피난민들처럼, 흩어진 그들은 생존 자체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복음)을 전했고, 그 중 몇몇은 헬라인들(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는)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11:21).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집중해야 할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1)첫째,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Worship) 2)둘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교회(Holy Character) 3)셋째는, 복음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Discipleship)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진정) 우리 낙스벨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